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아르헨티나 키르치네르 정부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박채순

1. 키르치네르 정부, 성공한 10년인가 잃어버린 10년인가

지난 5월 25일,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앞 5월 광장을 가득 메운 ‘키르치네르 집권 10주년 축하행사’에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키르치네르 정부를 10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크리스티나 측은 부부(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가 집권한 10년(2003년 5월 25일~2013년 5월 25일)을 ‘성공한 10년’이라고 자평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의 비주류, 반정부 매스컴 등은 결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한다. 일부에서는 성공한 10년도 잃어버린 10년도 아닌 ‘낭비한 10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마르틴 레드라도는 “키르츠네리즘은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권력 쌓는 기계와 같았다. 이 기간은 순전히 낭비한 10년이였다”고 말한다.¹⁾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인사 중에는 에두아르도 두알데 전 대통령도 들어 있다. 2011년 대선에서 54.11%를 얻어 페론 대통령 이후 최고의 득표율로 재선된 크리스티나는 남편에 이어 두 차례 임기

1) 마르틴 레드라도는 외교부 차관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하버드 경제학자이다. Federico Mayol(2013), “10 años K. Una década para el debate”, *Revista Noticia*, núm. 1900(2013, 5, 25), p. 37.

동안 거둬들인 경제 성장, 의회 과반 의석 획득, 아르헨티나 국가 주권 회복, 서민에 대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등을 이어가며 헌법에서 금지된 3선을 통한 집권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키르치네르 부부 집권기에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등 사회 곳곳에 포진된 K그룹을²⁾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10년 동안 튼튼하게 구축된 K그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야당이나 페론당의 비주류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2015년 대선까지 K그룹이 계속 독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저지할 반대세력이 등장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글에서는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부부 정부 10년을 조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아르헨티나 정치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잃어버린 10년, 신자유주의 10년 그리고 2000년의 국가 위기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보냈다.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청산을 위한 몸부림, 감당하기 어려운 외채, 극심한 인플레이션, 치솟는 환율, 노동자 파업, 고용하락, 경제 후퇴 등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선 메넬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자본과 고용의 자유화, 시장 개방화,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정책과 태환정책 등을 통해 성장과 안정을 회복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의 병폐가 나타났고,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은 1999년 10월 대선에서 야당인 라디칼(Radical) 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0일에 집권한 델 라 루아 대통령도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계속 유

2) 키르치네르(Kirchner)의 이니셜 'K'에서 이름을 따 온 이 그룹은 정치, 기업, 법조, 문화, 노조,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를 지지하는 특별한 계파로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델 라 루아 전 대통령

지하다 경제를 파탄 냈고, 변화를 원하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국가 외채는 1,462억 달러에 이르렀고,³⁾ 당장 2000년 한해에 상환해야 할 외채만 25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빈곤층은 30%, 실업지수는 14%로 치솟았다. 국민의 분노는 곳곳의 슈퍼마켓 약탈로 이어졌고, 시민들의 냄비시위도 전국에서 발생했다. 마침내 2001년 12월 20일, 피케테로(piquetero)라는 이름의 가두시위자, 시민 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이 모인 오월 광장 대규모 시위에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20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임기 절반을 겨우 넘긴 델 라 루아 대통령은 결국 청사에서 헬기로 도주하고 만다.⁴⁾ 이어서 국가 파탄 상태를 막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계속되고,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10여일 사이에 4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⁵⁾ 2002년 1월 2일에 취임한 두알데는 2003년 4월 27일 선

3) Alberto Lettieri(2012), *La historia Argentina: En clave nacional, federalista y popular*, Buenos Aires: kapelusz norma, p. 313.

4) Andújar, Andrea N. y otros(2012), *Historia Argentina: en el contexto latinoamericano y mundial(1850 hasta nuestros días)*, Buenos Aires: Santillana, p. 340.

거를 실시하여 2003년 5월 25일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준다.

III. 키르치네르 집권 10년

1.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시대

두알데 대통령에 의해 조기 실시된 대선에서 3선을 노린 메넬이 24.45%, 키르치네르는 22.24%를 얻었다. 3위에 로페스 무르피, 그 뒤로 로드리게스 사아, 엘리사 카릴로 순으로 득표 하였다.⁵⁾ 그 후, 헌법에 따라 키르치네르와 메넬의 결선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의 불리함을 인식한 메넬이 포기하여, 결국 키르치네르 후보는 실업자 수보다 적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재임 4년 동안 연평균 9%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성과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들이 책임지고 실시한 정책이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2001년 12월 23일에 전격 단행된 로드리게스 사아 대통령의 외채지불정지, 2002년 초 두알데 정부가 결정한 태환정책 폐지와 변동환율 도입 등이 예이다. 당시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키르치네르는 중앙 정치무대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선거에서도 겨우 22%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두알데 전 대통령의 그늘 속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대통령으로서 독자적인 실권을 행사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법원을 정부의 예속 하에 두는 않

5) 이때 대통령직을 계승한 순서대로 열거하면 라몬 푸에르타(Ramón Puerta),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Adolfo Rodríguez Saá), 에두아르도 카마뇨(Eduardo Camaño),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이다.

6) 카를로스 메넬,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로드리게스 사아는 모두 페론당 출신으로, 세 후보의 지지를 합치면 60%가 되었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성장률	8.8	9.0	9.2	8.5	8.7	6.8	0.9	9.2	8.9	1.9
소비자물가	3.61	5.94	11.69	9.43	8.16	7.01	7.44	10.41	9.12	10.34
실업률	20.4	14.4	13.0	11.4	9.8	8.4	8.4	8.3	7.4	7.1

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중요 업적(키르치네르 2003-2006, 크리스티나 2007-2012)

출처: INDEC(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와 <http://www.cei.gov.ar/es/argentina>를 활용하여 필자가 산출한 수치이며, 소비자물가지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와 카피탈 지역의 수치이고, 실업률은 매해 1/4분기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와 카피탈 지역의 수치임.

는 조치를 취했다. 2005년 10월 23일 실시된 중간 선거에서는 두알데의 아성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부인 크리스티나를 상원후보로 밀어 두알데 부인 치체 두알데를 제치고 당선되게 하는 등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에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입지를 굳혀 나갔다. 군사정권 당시 운동권에 속했던 중도좌파 성향의 키르치네르는 군과 경찰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알폰신과 메넴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사면 복권 등을 재검토하여 되돌리는 등 인권 신장을 꾀한 역사청산 작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주권과 남미 통합에 관심이 많아 반미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많은 교류를 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두알데 정부에서 성공을 거둔 로베르토 라바냐 장관을 유임시켜 공공지출을 유효적절하게 운용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다.⁷⁾ 위의 표를 보면 키르치네르 집권 이후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의 각종 지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5년 동안의 경제 성장은 지난 100년 중 최고의 성장으로 기록된다. 2005년 2월 25일 외채에 짓눌린 아르헨티나는 76.15%의 참여율로 채무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감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15일 외채의 전액 상환을 선언하고, 2006년 1월에는 IMF 채무 98억불 상당을 중앙은행 보유 외화로 상환했다. 고용 확대로 실업이 감소하였고, 2002년 40%에 달하던 소비자 물가도 2004년 이후 거의 한자리 수로 유지되었다.

7) Alberto Lettieri(2012), 앞의 책, p. 343.

키르치네르 시대에 이른바 전통적인 구시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아르헨티나가 탄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⁸⁾

2. 제1기 크리스티나 정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는 2007년 10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44.92%를 득표하여, 22.95%를 획득한 엘리사 카리오와 16%를 획득한 전 경제부 장관 로베르토 라바냐를 물리치고 여유 있게 당선되었다. 함께 실시된 입법부 선거에서도 키르치네르 파인 ‘승리를 위한 전선’(FPV: Frente para la Victoria)이 상원 41석과 하원 128석을 얻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키르치네르의 성공과 야당 세력의 부진으로 부부가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크리스티나의 당선은,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재선을 포기하고 부인에게 기회를 준 남편의 후광이 컸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 향상, 페론당에 대한 굳건한 지지, 에바 페론 이미지의 오버랩 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요인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크리스티나의 정치적인 경력과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크리스티나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남편인 전임 대통령의 협조아래 국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전임자의 유리한 자산만 승계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12월 10일에 취임한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앞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국립통계청의 인플레이션 발표에 대한 불신), 에너지 부족 문제, 빈곤층 지원, IMF이외의 외채 교섭, 사회 치안문제 해결 등의 과제가 놓여 있었다. 2008년에는 수출품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농업단체들이 전국 100여개 이상의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 사태로 식료품값이 인상되고 공급에 큰 차질

8) Alberto Lettieri(2012), 앞의 책, p. 338.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

이 생겼으며,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라디칼 당 출신 훌리오 코보스 부통령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 정치력에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코보스는 키르치네르가 주장한 ‘국민대중정부’(El gobierno nacional y popular)의 기조 아래 2008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국립사회보장청을 강화하여 약 25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였으며, 2009년에는 보편적인 자녀수당을 신설하여 전국 18세 미만 청소년 약 360만 명이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빈곤층 학생들이 정보화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등 공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대통령은 국가 경제주권 회복과 국유재산 회복의 일환으로 메넴 정부 시절 민영화한 아르헨티나 항공사(AA)를 국유화하였다.⁹⁾ 그러나 2009년 10월 중간 선거에서 키르치네르 계파인 FPV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패배를 맛보았다.

9) Alberto Lettieri(2012), 앞의 책, p. 346-349

3. 제2기 크리스티나 정부

2008년 말 미국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0.9%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키르치네르 시절의 수출 지향적 생산체제의 성장세를 대체로 유지했다. 크리스티나는 2011년 선거에서 민주화 이후 최고의 지지율인 54.11%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지지율은 하향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2010년 10월 27일 갑작스러운 남편의 서거가 오히려 동정표를 끌어들이며 재선의 성공과 정통성 회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1년 재선 이후에는 국제 환경의 변화와 국가 운영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게다가 크리스티나의 3선 의도가¹⁰⁾ 확인됨으로써 국민이 찬반 두 편으로 나뉜 상황이다. 경제정책은 아르헨티나석유회사(YPF)의 재국영화에서¹¹⁾ 보듯이 국제관례로 보면 다소 무리한 정책을 감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자존심을 회복한 정책으로 환호한다. 2012년에는 환율 및 무역 통제 정책을 시행하여 열린 경제에서 닫힌 경제로 전환하였지만,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둔화, 대외수지 악화, 실업률 증가 등 경제지표가 집권 1기에 비해 매우 나빠진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 환경의 악화와 YPF몰수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외부 투자가 저하되는 등 경제 성장의 둔화세가 역력하다. 또한 크리스티나의 3선을 위한 방안으로 실시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권위주의로 회귀한 듯한 인상을 주며, 거기에 집권층의 부패까지 더해져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다. 일례로 사법민주화란 이름의 법률안 등을 4, 5월 국회 양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이 본인과 측근의 부패 문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전 세계 107개국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10) 크리스티나는 2007년에 초선, 2011년에 재선하였으므로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면 3선에 해당한다.

11) 크리스티나는 1993년 메넴정부 시절 민영화하여 스페인 기업 랩솔이 보유한 아르헨티나석유회사(YPF: Yacimientos Petroliferos Fiscales)를 2012년 4월 16일 국유화했다.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부패가 최근 2년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력 일간지 『클라린』에서도 아르헨티나 국민의 72%는 2011년 이후 부패가 더 늘어났다고 인식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집권 기간인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 동안 부부의 재산이 1,00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이를 불법 재산 증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크리스티나의 재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아마도 보우도우는 2010년 부채스와프 당시 경제장관으로 재직하며 백이십억 달러의 채무 탕감조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함께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시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는 결국 부통령이 국가기관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혐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키르치네르 부부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라사로 바에스라는 K그룹 기업인의 부정도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는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결탁하여 부정축재를 하였으며, 돈세탁을 통해 세금과 감시가 없는 중미 등 해외로 수천만 불의 재산을 도피했다는 내용이 한 언론인을 통해 파헤쳐지고 있다. 요컨대, 라사로 바에스는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분신이며 키르치네르가 지방정부의 주지사로 있을 때부터 관급 공사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척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폭로한 프로그램은 축구 경기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 시간을 변경하거나, 언론기업과 언론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라사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3~2009년 기간에 교통부 차관을 지냈으며, 키르치네르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K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리카르도 하이메의 경우, 직권남용과 예산낭비를 사유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7월), 돌연 행방을 감추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인터폴에 수배령 내려진 상태이다. 이러한 부정부패 이외에도 크리스티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인플레이션, 환율 문제, 에너지 수입에 따른



3선을 꿈꾸는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

국고 감소, 경기 둔화 등을 비롯해, 비정규직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정체, 치안 부재 등 많은 난제가 있다.

4. 2013년 10월 27일 중간 선거 전망

크리스티나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중요한 고비가 이번 10월 27일에 있을 중간 선거다. 이번 선거의 목표는 국회 2/3의석을 확보하여 크리스티나 3선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전체 72명의 1/3인 24명의 의석을 새로 선출한다. 하원은 총 257명 중 127명을 개선(改選)한다.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각 정당이나 정치 그룹에서 유력 정치인이 각각 후보군 리스트를 가지고 예비 선거과정(8월 11일)을 거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최종 선거(10월 27일)를 치른다. 즉 개인에게 투표하지 않고 중요 정치인을 선두에 내세운 리스트

에 투표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K그룹의 정치생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티나가 재선되었던 2011년과는 사뭇 다른 정치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크리스티나와 K그룹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종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K그룹이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IV. 2015년 까지 향후 정치 전망

집권층과 지지자들은 키르치네르 정부 10년이 지난 시대와는 확실히 다른 아르헨티나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심연에 빠진 경제를 살려냈으며, 대미 의존적인 정책이 중남미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메넬 정부 시기 민영화한 국적 항공사와 석유회사를 몰수하여 국가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 개선, 정치 사회의 안정화, 부부 평등권, 사회보장 개혁, 자녀 수당 전면 실시 등 전반적인 사회 개혁 및 복지 정책을 실행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크리스티나와 K그룹은 또 다른 10년의 집권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출구전략,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브라질의 성장 둔화와 민심의 이반, 『클라린』, 『나시오』와 같은 유력 언론의 비판 공세, 아르헨티나항공사와 석유회사의 국영화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수출 감소, 이중환율의 문제, 인플레이션, 기업인들의 투자 기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집권 세력에 대한 피로 등 유리한 국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키르치네르 대통령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두터웠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외채 탕감 등 순풍을 타고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는 국제 환경의 악화로 역풍이 부는 가운데, 법적·제도적으로 금지된 3선을 꿈꾸고 있어 국민이 피로감

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아르헨티나 정치판도에서 권력욕에 물든 페론당에 맞설 대안이 야당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2015년 대선에서도 페론당의 집권이 유력하다고 전망된다. 크리스티나 세력이 3선의 꿈을 버리고 후계자를 선택하여 집권하거나 페론당의 비주류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으며, 페론당 내의 독자 노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해야 할 정치인은 역시 크리스티나 본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 시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마크리, 코르도바 주지사 델라소타, 여당 국회의원 후보인 인사우랄데와 반 크리스티나를 표방한 개혁전선의 마사 등으로, 이들이 2015년까지 각축을 벌릴 것이다. 키르치네르 집권 10년의 성공 여부와 함께 누가 2015년의 주인공이 될지는 이번 10월 중간 선거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채순 - 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아르헨티나 존 에프 케네디 대학교 정치학 박사이며 아르헨티나 국립코르도바 대학교 아세아 아플카 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하였다.